

부활절 여섯 번째 / 어머니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6<sup>TH</sup> SUNDAY OF EASTER

주후 2021년 5월 9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04 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새 579)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72 번 어버이주일(Parent's Sunday)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Leading 요한일서(1 John) 3:11-24 양용일 집사

설 교 Sermon “다시 만나는 교회(26) – 사랑으로” 김일선 목사  
(Gathering Together Again – In Love)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송: 윤홍준 집사, 반주: 김미경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24 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새 22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죄로부터 쉽게 돌이키지 않으려는 완고함과

용서와 화해 조차도 우리가 결정하려는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고, 정작 사랑해야 할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마음 아프게 했으며 많은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참회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같이, 우리도 긍휼히 여기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같이, 우리도 진정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4:32)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한글개역 요일 3:18)

“Dear children, let us not love with words or tongue but with  
actions and in truth.” (NIV 1 John 3:18)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5/9 (주일)	5/10 (월)	5/11 (화)	5/12 (수)	5/13 (목)	5/14 (금)	5/15 (토)
본문	민17,18 사55 사7 약1	민19 사56,57 사8:1-9:7 약2	민20 사58,59 사9:8-10:4 약3	민21 사60,61 사10:5-34 약4	민22 사62,63 사11,12 약5	민23 사64,65 사13 벧전1	민24 사66,67 사14 벧전2

수/요/성경/공부 토/요/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5/12수 오후7:30)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아” (고후3:12-18)
토요 새벽기도회 (5/15토 오전6:30)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 37:1-11)

지난 주일(5/2, 어린이 주일) 말씀

“다시 만나는 교회 (25) – 부족함으로” (빌 4:11-20)

부족함은 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  
도 부족함을 통해, 우리는 정작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친  
밀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팔복’의 말씀  
에서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의 주리고, 목마르고, 꺾박을 받는 사람  
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바로 “무엇인가 부족했  
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  
의 은혜가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의 은혜가 담겨지며? 또한 우리의 부족함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  
한 사명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1)첫째는, (우리의) 능력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선될 때이고 (빌4:13), 2)둘째는, (우리의) 부족함 중에도, 절제에서 비  
롯된 자족함을 배워나갈 때이며 (빌4:11-12), (마지막) 3)셋째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입니다 (빌4:19절), 그래야만, 우리의 부족  
함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 있으며, 우리의 부족함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사명으로 뒤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능  
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감히)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기억  
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해 가십시오. 그리고, ‘일체의 비결인’ 자족함을  
배워 가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우리 삶의 무게는 정확히 반비례  
함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부족함이 (오  
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사명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메/모